

월요광장

문화도시의 관문



정유진  
코리아컨설턴트 대표

나라와 도시간의 경계를 이동하자면 관문을 지나 가는 일을 생각할 수는 없다. 관문은 과거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으로 주요 지점을 잇는 통로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물품을 조사하는 관(關)의 문(門)을 의미했다.

잡은 여행 탓인지 공항이나 기차역과 같이 도시를 대표하는 관문에 들어서면 습관적으로 실내의 건축을 포함한 공간과 시설 그리고 서비스 면면을 유심히 보며 비교하게 된다. 각기 다른 도시의 관문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좋은 관문일수록 유형적 공간을 이루는 시설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시스템에 이르는 무형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침이 없다는 것이다. 건축적으로 아름답고 이용자를 위해 잘 갖춰진 시설과 서비스는 기본이고,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도시 이미지와 정보를 홍보하는 일까지도 정교하다.

이런 기준으로 기대 이상의 발견을 한 관문을 꼽자면 카타르의 공항이다. 카타르의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은 주변 아랍국가들에 비하면 신생 공항이다. 하지만 공간 디자인이나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남다르다.

무려 300종 이상의 나무와 약 2만5000종의 식물종을 보유한 생태계를 관문 시설의 실내 열대 정원으로 조성했다. 또한 카타르 예술가를 비롯하여 장-미셸 오토니에, 우르스 피셔 등 현대 미술 거장들의 아이코닉한 작품들을 곳곳에 설치하여 마치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미술관을 방불케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실내 디자인도 뛰어나다. 아름다운 천장 공간의 자연광과 어우러진 편안한 조도도 조도지만 공항 대합실에 놓인 의자들과 바닥에 깔린 카페테에 이르기까지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없다.

도하의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카타르가 천연가스와 석유만 있는 노예 사회 국가가 아님을 느끼게 되고 공항 밖 도시 도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들 중 일부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이동 중 도하의 이슬람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한 명소를 둘러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두가 천연 가스와 오일이 많은 카타르이기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 들른 공항에서 공공 미술 작품을 보고, 세련되게 디자인한 고급 소재의 의자에 앉고, 카페테를 밟고 나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그들의 강한 의지에 약간의 설득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다 도시 경쟁력이 우선인 시대가 되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무엇보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이 중요하고 이러한 차별점을 부각

하며 다양한 장소와 매체를 통해 홍보함에 있어 도시의 관문 시설은 더욱 중요한 공간으로 부상한다.

문화 예술 도시라고 간주하기 어려웠던 도시 도하를 경험하며 광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공항과 기차역 그리고 터미널을 통해 광주에 도착한 방문자가 갖는 첫인상은 어떨까. 민주화의 성지이자 세계 현대 미술의 현장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에 들어서며 과연 조금이라도 벅찬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광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역사적 장소와 문화적 공간을 방문하고 다른 주변 도시로 이은 관광을 상상하게 될까.

도시 간 이동은 물론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도시의 관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동을 위해 거쳐가는 단순한 편의 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공항이 '공항복합도시'를 지향하고 확장하면서 쇼핑과 레저, 그리고 공연, 예술 등이 가능한 융복합 문화공간으로까지 변화·발전하고 있는 시대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의 주요 관문인 광주송정역의 확장 공사를 시작해 27년에 완공하며 미디어아트의 구현을 통해 광주송정역을 재창조해 지역 관문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 증축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니 여러 모로 깊이 우려되는 바이다. 부디 광주송정역의 변화가 단순히 규모와 편의성의 개선에만 치우치지 않고 창의성과 정교함이 발휘된 생동감과 매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아울러 세계와 연결된 지역 커뮤니티의 축이자 미래로 향한 광주 시민의 자랑스러운 관문으로 커나기길 바란다.

社說

지구촌 축제 올림픽 지역선수들에 응원을

지구촌 최대 축제인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지난 주말 막을 올렸다. 100년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스타디움이 아닌 센강을 중심으로 파리 시내 전체가 무대라는 점에서 이색 올림픽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루브르박물관과 에펠탑 등 명소를 배경으로 펼쳐진 화려한 개막식은 문화 올림픽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8월 11일까지 17일간 열전에 들어간 파리올림픽에는 206개국에서 32개 종목에 1만5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선수단은 22개 종목에 262명으로 최근 가장 적은 규모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태권선수 14명이 메달 사냥에 나섰다.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시청)는 3년전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근대5종에서 입상한 한국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 증축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니 여러 모로 깊이 우려되는 바이다. 부디 광주송정역의 변화가 단순히 규모와 편의성의 개선에만 치우치지 않고 창의성과 정교함이 발휘된 생동감과 매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아울러 세계와 연결된 지역 커뮤니티의 축이자 미래로 향한 광주 시민의 자랑스러운 관문으로 커나기길 바란다.

도전한다.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한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제'라는 별명으로 여울리게 현재 세계랭킹 1위로 금메달에 가장 근접한 지역출신 선수다. 항저우아시안게임 2관왕에 이어 최근 무려 부상에도 싱가포르 오픈 우승으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인 출신으로 사격에 출전한 43세 이보나는 한국 대표팀 최고령 선수로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섰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 더블 트랩 은메달과 트랩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 대회에선 산탄총 트랩 종목에서 20년만에 메달에 도전한다.

올림픽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 출전 선수 모두 나라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쏟아 붓는다. 지역출신 선수들은 특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파리올림픽을 위해 땀방울을 흘려왔다. 이들의 선전을 응원하며 아왕이면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메달로 보상 받기를 기원한다.

티.메프 대란, 피해 줄이고 재발방지책 세워야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티몬·위메프에서의 소비자 환불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에 달하며, 이들 업체에 입점한 업체는 6만개에 이르는 만큼 자칫 이번 사태로 영세 업체들의 몰도산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전국적으로 800만 명을 웃는다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 소비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휴가철 가족 여행 상품이나 호텔 숙박권 등으로 피해액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 미환불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불안은 물론 휴가를 포기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서울 강남구 위메프 등의 분사에는 상품을 구매한 수백명의 소비자들이 수일째 신속한 환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불안한 소비자들이 단체 연락망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전국에서 물러든 것이다.

플랫폼 중개업체는 판매업체들이 입점해 자사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개인 소비자들은 해당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와 동시에 결제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상당 기간 후에 정산을 해준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 소비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휴가철 가족 여행 상품이나 호텔 숙박권 등으로 피해액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 미환불로 인한 금전적

수필의 향기

석 달 열흘 붉은 꽃



김향남  
수필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라...' 어려서 자주 들던 노랫말이다. 강변에 자리 잡은 탓인지 우리 동네 어른들은 유독 풍류를 즐겼고 그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노래였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자주 듣게 되다 보니 어린 귀에도 저절로 익숙해졌다. 어서와 함께 놀기를 청하는 노랫말의 비유가 얼마나 기막힌 것인지 한참 후에야 알게 됐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열흘 붉기 어렵고, 제 아무리 둥근 달이라도 금세 이지러지기 마련이듯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라. 불과해진 얼굴에 감돌던 그 취흥의 순간이 어스름한 달빛처럼 묘한 슬픔을 안겨주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꽃들은 그 모양이나 빛깔도 제각각 다르다. 같은 이름의 꽃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다. 아침 꽃 다르고 저녁 꽃 다르다. 들판에 필 때, 물가에 필 때, 산중에 필 때 다르다.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보는 주체에 따라서도 다르다. 꽃에 정해진 본질은 없다. 꽃이 불타일으키는 정서 역시 규정할 수 없다. 꽃은 다양하고 개별적이며 독자적이고 개성적이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열흘 붉은 꽃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꽃의 공통된 속성이다. 세상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고 하지만 며칠을 못 가서 저버리고 만다. 개화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낙화의 비감은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인가, 사람들은 유난히 지는 꽃에 민감하다. 동백은 '눈물처럼 후드득' 떨어지고, 벚꽃은 '날날이 바람에 날려 산화'하고, 목련은 애당초 흠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듯 '흙빛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탄식한다. 물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 열매를 위한 삼기도 하지만, 그 또한 이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하고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는 꽃의 허무는 곧잘 인생에 비유되곤 한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나,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나 모두 환승간에 지나지 않음을 몸소 체득한 결과다. 지금은 가고 없는 저 우리 동네 어른들도 꽃은 금방 지고 삶은 길지 않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우친 것일리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흥을 냈겠는가. 진달래가 피었다고, 누구네가 시집 장가를 갔다고, 누구네는 환갑을 맞았다고 그때마다 '늘'기를 빼놓지 않은 것은, 그 순간이라도 붙잡고 싶은 애뜻한 아쉬움에서였을 것이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꽃에 눈길 주는 날이 늘어간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 본래의 탐미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잠깐이든 떠나버릴 것을 아는 깨달음이다. 게다가 꽃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꽃의 향기와 빛깔은 인간을 잡아끌기 충분하다. 꽃은 그 향기와 자태를 뽐내면서 끈질기게 인간을 유혹해 왔다. 유혹만 하지 기다려주는 일은 없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서둘러 꽃구경을

나서고,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 불멸의 순간을 만들고자 애쓴다. 모습은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사진에 박힌 순간만은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맘때면 나도 빠지지 않고 꽃구경을 나선다. 만화방처럼 붉고 아니고 햇빛 짙은 한여름에 무슨 꽃구경인가 싶겠지만,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장마가 끝난 여름날의 햇살은 그야말로 맹렬인데, 그 맹렬 아래 펼쳐진 화창한 꽃동산이 여기가 무뎠던 듯 선경을 이룬다.

꽃구경은 맹벌에서도 좋고 구름 풍성한 날도 좋지만, 비바람 몰아치는 날이 더욱 좋다. 그곳 나무루에 앉아 차라도 한 잔 홀짝이고 있거나 혹은 별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라도 내려보라. 후끈한 열기는 가시고 금세 청량해진 공기가 온몸을 간질일 것이다. 비바람 불고 꽃잎 휘날려 그 꽃잎 풀밭 위에 뒤굴 때면, 한 잎 꽃잎처럼 가벼워진 것도 알게 되리라. 그런 날은 낙화의 서러움 같은 건 있어도 좋다.

연못을 가운데 두고 가장자리를 빙 둘러섬은 나무들은 지팡이를 짚고 선 것도 있고, 구멍이 뚫려 땀질해 놓은 것도 있다. 굵고 매끈한 몸피에 맛대로 뻗은 가지는 보는 눈을 압도한다. 못에 비친 하늘과 그 하늘에 다시 핀 푸가지와 떨어진 꽃잎들의 잔해가 물결처럼 여여쁘다. 열흘 붉은 꽃 없다고 하지만, 배롱나무 진분홍 꽃은 석 달 열흘을 붉어 있다. 아래 꽃은 떨어지고 위 꽃은 피어나며 '아무도 모르게 거듭나고 거듭나는' 꽃이다. 피고 지고, 지고 또 피어서 화무십일홍의 허무를 잊게 하는, 끈질기게 생의 비의(秘義)를 보여주는 꽃이다.

기 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할 시기가



조우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2019년 여름,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를 출범하는 등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도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들과 함께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진단·컨설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었다.

2019년 탄생한 GGM이라는 혁신사라는 자동차 양산을 거쳐, 최근 캐스퍼 전기차(EV) 생산을 개시하는 등 지역의 핵심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산업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말 오픈 AI사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AI가 모든 산업과 시장에서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광주본부장으로 부임하고 바라본 광주는 GGM이후 두 번째 세 번째 혁신사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소멸이 이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특히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상품을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청년층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약순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광주시의 청년고용률은 심각하다. 수도권인 서울(50.9%), 경기(50.7%), 인천(47.4%)보다 현저히 낮은 39.1%이다. 비슷한 규모인 대전광역시 43.6%에 비해서도 낮다.

AI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What to)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네트워크와 이해당사자간 협력이 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역, 지역혁신기관, 교육계와 산업계의 협력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업사태가 필요한 것이다.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이루어지고, 지역 내 어떠한 노드(지역 거점)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유기적이고 촘촘하게 잘 링크(협업 강도) 시키는가가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의 미래차 전환 생태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점의 협업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다.

지역혁신 관점에서 중진공은 중소기업과 정부 정책 간 가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 지역 혁신기관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신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밴드를 형성할 수 있다. 대·중소 상생협력(수직적 공급망)과 중소기업 간 협업(수평적 공급망) 활성화를 통해 수직적·수평적 상승환 구조의 미래차 전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광주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2차) 종료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부부 광주전남지방청,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근로자진흥원, 광주인공지능융합사업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동사업 전환'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이 실행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이다. 정부, 지역 혁신기관, 미래차 생크기업이 합심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한다면 AI 기반의 미래차 전환이 빛고을 광주에 실행력을 가져오는 훌륭한 화순이 될 거라 생각한다.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참여기관들의 함께 달리기들 통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AI 기반 미래차 전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나길 꿈꾸어 본다.

無等鼓

기생충은 인간 등 숙주에 의존해 생존한다. 현재까지는 미국 유타주 동굴에서 발견된 1만 년 전 요충알이 인간과 기생충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오랜 증거다. 고고학이 인간의 변분을 연구하는 이유는 고대 생활상을 추적하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광주 신장동 저습지 유적 토양분석 사례를 고(古)기생충 연구의 효시로 여긴다. 이 유적에서는 토양 매개성 기생충인 회충과 편충 알이 발견됐다. 연구자들은 "정착 농경생활에 따라 토양 오염이 만연했다"고

진장·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 인근 주민에게서 감염사례를 보고된다.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고대의 DNA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북한이 남한에 날려보낸 풍선에 실려온 오물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 오물에 딸려온 토양을 분석한 결과 회충, 편충, 분선충 등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지위를 잠깐 기생충이 검출됐다. 당국은 "이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발견돼 인본에서 나온 기생충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토양 매개성 기생충은 화학비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면 사람 배설물 환경이 극히 비위생적일 때 생긴다.

백제의 사비 도읍기(538-660년)에 해당하는 충남 부여 사비도성에서도 기생충이 발견됐다. 화장실을 연상케 하는 V자형 유구에서 회충, 편충, 간흡충 알이 확인됐다. 조선시대 경북공 성벽, 육조거리 등 토양 조사에서는 식품매개성 기생충인 간흡충과 광절열두조충이 검출됐다. 잉어나 송어 등 민물고기를 낚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이다. 간흡충(간디스토마)은 담도 폐쇄를 일으키고 심하면 담관암·간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섬

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면 생활 환경이 극히 비위생적일 때 생긴다. 2017년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 수십마리가 발견돼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위생 상태는 절망적이다. 북한이 풍선도발에서 보여준 현실이다. 기생충이 빼앗아 있는 사실은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머지않아 식량과 함께 구충제를 필수 의약품으로 선정해 북에 쫓겨 보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주국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